

90.6.22

나라밖



소식

남자 용접공도 불임 가능성

앉아서 하는 작업·스트레스도 불임원인

【코펜하겐=Working Environment】방사선, 마취제, 중금속(특히 납), 담배, 알코올 외에도 앉아서 하는 작업, 스트레스, 수백 종류의 화학물질이 불임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덴마크의 한 연구에서 밝혀졌다.

덴마크의 국립산업보건소의 연구에 따르면 임신부가 장기간 앉아서 하는 작업을 하면 미숙아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빠른 속도의 작업, 단조로운 작업, 시간에 쫓기는 작업, 기계의 통제 아래 놓인 작업,

장시간의 작업대기, 서투른 작업은 스트레스를 일으킴으로써 불임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스트레스가 불임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은 덴마크의 동물실험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한편 덴마크의 아후스대학교가 애기없는 3천1백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애기없는 용접공이 다른 직종의 애기없는 노동자들보다 두 배나 열등한 정액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용접공의 정자는 숫자, 모양, 유동성에서 더욱 비정상적

이었다. 이 연구는 또한 용접공 가운데 '녹슬지 않는 강철'(스테인레스 스틸)을 용접하는 노동자가 가장 심각하다는 사실도 밝혀



냈다.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연기의 최저허용농도(MAC)가 특히 가스 용접에서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또 다른 연구보고도 있으며,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주로 철 망간 및 크롬과 니켈의 발암합성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폴리브덴 바나딘 구리도 간혹 발견된다. 동물실험을 한 결과 이들 가운데 어떤 금속물질은 남성의 정자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덴마크의 전지(배터리)생

남성이 여성보다 방사선(Radiation) 금속(Metals) 유기용제(Organic Solvents) 마취가스(Anesthetic Gases) 열(Heat) 농약(Pesticides)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이 덴마크의 한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